

전남서 국내 첫 '친환경 부표' 개발... "해양 폐플라스틱 해결 탄력"

전남도 지원기업,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 국내 처음 개발 완도 양식장서 6개월 실증·성능 검증→해수부 인증 추진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친환경 부표'가 전남도 지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와 완도지역 소재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전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바다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하얀색 발포 폴리스티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파도나 충격에 잘 부서지고 흩어져 수거가 어렵고 내구 연한이 짧아서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이상이 스티로폼 부표로 조사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부표의 경우 자연분해가 잘 되지 않고 분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데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 섭취가 장기간 누적되면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며, 수산물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축적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내 어업용 부표는 약 5500만개로 이 중 스티로폼 부표는 전체 72%(3941만개)에 달한다.

해수산부는 2015년부터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는 국내 친환경 부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전남도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어업용 친환경 부표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여수 소재 ㈜이폴리텍과 완도 소재 SI해원이 부표 제작을 맡고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기술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1월 생분해성 해양 부표 연구개발에 착수해 양산형 제품 개발을 마쳤다.

또 지난 9월까지 6개월 동안 완도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다시마 양식장 4곳에서 현장 실증을 했다.

실증 결과 파손과 부력 상실 등 사용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해수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부표 인증 항목 시험 결과에도 100% 만족해 사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해수부에 친환경부표 정식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취득하면 대량 양산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실증을 확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해양 부표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기자재 제조기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토록 지원하는 '해양 생분해 실증 테스트베드'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가 전남도 지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 양식장에서 6개월간 제품 실증을 마치고 해수부 인증을 추진 중이다. (사진=전남도 제공)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생분해부표 국내 첫 개발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과 해양쓰레기 오염 문제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게됐다"며 "전남이 화이트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더 노력하고,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리 토끼를 잡게됐다"며 "전남이 화이트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더 노력하고,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효천역 갑툭튀'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해법 찾나 광주시 예타 도중 변경 노선안 제안...전남도 "경제성 높이는 전제 수용 가능"

호남권 최초의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는 안이 도출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안을 공동 신청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광주 효천역을 포함하는 노선 변경안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요청 공문은 시·도가 수년간 협의 과정을 거쳤고, 국토부 노선안이 확정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갑자기 뒤늦게 전남도를 당혹스럽게 했다.

특히 국토부가 용역을 통해 확정된 기존 노선안은 '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을 잇는 북선전철로 총연장은 26.46km, 경제성은 '0.78'이다.

반면 광주시가 전남도에 최근 제안한 효천역을 경유하는 변경 노선안은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남구 효천지구~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으로 이어진다.

총연장은 28.77km로 2.31km 늘어나고 경제성은 '0.63'으로 기존안(0.78)보다 '0.15' 낮아진다. 사업비도 기존 1,355,192억원보다 2676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광주시의 노선 변경안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현재 기재부가 국토부 확정 노선안에 대해 예타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선 변경을 요구할 경우 예타 통과를 담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대로 광주시는 광역철도 사업이 광주와 나주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인구 3만명에 달하는 광주 효천지구를 반드시 노선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률 고려는 적자 운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향후 광역철도를 시·도가 넘겨받아 관리해야 될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도간 분명한 입장 차는 최근 협의 과정에서 간극이 좁혀져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 핵심은 기존 노선안보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최종 변경안을 광주시가 전남도에 제시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광주시가 경제성을 기존보다 높이면서 효천역을 노선에 포함하려면 기존 대충역 노선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타 진행 중에 광주시로부터 노선 변경안 협의 요청이 들어와 당혹스러웠지만 지역민이 동의하는 경제성(BC)을 높일 수 있는 최종안이 나오고, 해당 안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면 주무 부처에 사업 변경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 혈액 수급 위해 단체 헌혈 상·하반기 헌혈 행사에 350여 명 동참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신현대 사장) 임직원들이 광주·전남지역의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일부터 3일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2023년 하반기 생명나눔 전사 헌혈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돕고, 지역 의료계에 가중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회사 차원의 단체 헌혈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올해는 상·하반기 헌혈 행사에 총 3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지역사회 생명나눔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 농지은행의 손 잡으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역영수지사(지사장 강대성)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지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 인하, 중도 상환 허용,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에 매월 일정 연금을 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63세부터 가입 가능)을 추가하여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배우자 승계형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인하하여 농업인 부부의 노후생활지원을 강화하였다.

또 농지연금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후,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 담보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농지연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가입자 손실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은 제공받은 우량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하여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1.4MW
2. 사업계시예정일 : 2023. 11
3. 사업운영기간 : 2023. 11 ~ 2048. 10(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3. 11. 02. ~ 2023. 11. 13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해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나주왕곡1호 태양광발전소	서바다	99.56	(1,178㎡/20,320㎡)
2. 나주왕곡2호 태양광발전소	서미루	99.56	(893㎡/20,320㎡)
3. 나주왕곡3호 태양광발전소	김현숙	99.56	(915㎡/20,320㎡)
4. 나주왕곡4호 태양광발전소	김선희	99.56	(831㎡/20,320㎡)
5. 나주왕곡5호 태양광발전소	문정애	99.56	(922㎡/20,320㎡)
6. 나주왕곡6호 태양광발전소	임완호	99.56	(836㎡/20,320㎡)
7. 나주왕곡7호 태양광발전소	이동주	99.56	(884㎡/20,320㎡)
8. 나주왕곡8호 태양광발전소	김미숙	99.56	(1,145㎡/20,320㎡)
9. 나주왕곡9호 태양광발전소	박용순	99.56	(882㎡/20,320㎡)
10. 나주왕곡10호 태양광발전소	김준필	99.56	(1,199㎡/20,320㎡)
11. 나주왕곡11호 태양광발전소	정준길	99.56	(979㎡/20,320㎡)
12. 나주왕곡12호 태양광발전소	조호진	99.56	(895㎡/20,320㎡)
13. 나주왕곡13호 태양광발전소	송원수	99.56	(825㎡/20,320㎡)
14. 나주왕곡14호 태양광발전소	(주)일양에너지	99.56	(1,686㎡/20,320㎡)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산99-2 (4필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전력전선사업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몰 근무 시간에 여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지 도우 행복대행이다.

국민 에너지서비스 제공을 응원합니다.

